

대학생의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와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의 관련성

배성숙*·노희진**†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원대학교 치위생학과

Correlation between oral-related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of college students

Sung-Suk Bae*·Hie-Jin Noh**†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and oral-related appearanc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100 college students at a college located in Gyeonggi-d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ral examinations, and self-rated oral hygiene management ability tests. The data was then analyzed accordingly.

Methods: Frequency test and chi-square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and SAS version 9.2 was used.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students' subjective perceptions about oral health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oral-related appearance($p < 0.05$). It is noteworthy that those who responded on 'satisfactory' oral health status indicated that 16% 'unsatisfactory', 28% 'average' and 68% 'satisfactory' on oral-related appearance. Students' self-rated oral hygiene management ability and irregular teeth conditions were also found relevant in causing discomfort in interpersonal activities, whereas students responded 'satisfactory', 0.00%; 'average', 31.82%; 'unsatisfactory' 68.18% ($p < 0.05$).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oral-related appearance can have an impact on oral health status and that oral-related appearance can be a contributing factor to improve oral health status and therefore results in promotion of general health. In the futur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about perception on oral-related appearance, oral health status and any resulting behavior changes.

Key words : Oral health status, Oral-related appearance satisfactio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접수일 : 2013년 7월 17일, 수정일 : 2013년 8월 4일, 채택일 : 2013년 8월 5일

교신저자 : 노희진 (200-70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길346)

Tel: 033-540-3392, Fax: 033-540-3399, E-mail: nohh@kangwon.ac.kr

I. 서론

오늘날 아름다운 외모는 능력의 평가로 이해되어져 성공의 주요 조건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신체매력은 사회생활에서 장점으로 작용하며(정명선과 김재숙, 2001), 체격, 체형, 얼굴, 건강상태 등은 사람의 인상형성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강혜원, 1995). 외모를 보는 방법이나 만족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김선희 2003), 현대인들은 대부분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외모관리행동을 추구한다. 특히 얼굴과 입술의 미소라인 그리고 가지런한 치아의 형태는 외모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구강관련 외모만족도를 높이는 기여도가 크다. 외모향상을 추구하는 동기는 아름다움, 인정, 과시, 이성의 호감획득 등으로 자신감을 향상시켜 성격과 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며,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감소시켜 자기만족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이수경과 고애란, 2006).

한편 건강증진행동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 보호, 증진 그리고 질병에 대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모든 예방적 행동을 의미하며 신체적, 심리적 차원으로 연구되어지고 있고(김선희, 2010) 이러한 차원에서 외모관리행동은 질병에 대한 예방적 행동이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기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수준보다 발전적인 건강관리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의 관련(김선희 2003; 전현진, 2010; 황윤정, 2007; 임보형, 2010; 박은아와 김현정, 2009; 김종욱, 2010; 강남순, 2011; 김완석과 유연재, 2009; 정명선, 2003; 황윤정, 2007),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의 관련(이승희와 박길순, 2011; 박은정과 정명선, 2010; 정명선, 2003; 이현욱, 2009; 오영진, 2005), 소비행동과 외모관리행동의 관련(강남순, 2011) 등 외모관리행동

은 주로 사회문화적 개입과 신체매력이나 신체가치에 대한 신체적 변인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 간의 관련성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외모관리행동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며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구강관련 외모만족도가 자가구강위생관리능력, 자가구강상태평가 및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과 일부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성인기 이후의 건강관리에 근원이 되고 건강한 생활습관 확립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을(김신정과 안은숙, 1997) 중심으로 본인의 올바른 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김지영, 2006) 외모관련 건강증진행동의 수립을 고려하여(이은실, 2011) 일부 대학 치위생학과 대상자 중심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부 대학생들에 대해 그 실태를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그들의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와 건강관리행동 습관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건강증진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외모향상 추구가 건강관리행동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강건강관리 전략을 꾀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A대학 치위생학과 계속구강건강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00명의 무작위 선출 대학생으로 그 중 보건계열 학생이 45명, 비보건계열 학생이 55명 이었으며, 연령은 18-28세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연구기간은 2011년 1학기 와 2학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2. 연구방법

1) 설문지

설문지의 구성은 표준화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후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100명에게 설문조사하였으며, 모두 연구에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구강관련 외모만족도,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구강검사

모든 연구대상은 치과의사 1인에 의하여 구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검사 지침서(보건복지부, 2010)에 근거하여 검사한 후 기록하였다. 구강건강에 따른 대상자의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와 구강건강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MFT(Decayed, Missing, Filling Teeth) 지수를 확인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평균 DMFT 3.15를 근거로 0, 1-3, 4-12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은 대상자들의 자가구강위생관리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PHP index)와 Plaque Rate(PR)을 측정하였다. PHP index는 자가구강위생관리의 질적 조절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치면착색제를 사용하여 검사대상인 여섯 개 치아에 침착된 치면세균막을 평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Zhu L et al., 2005). PHP index 의 경우 0점은 excellent, 0.1-1.7점은 Good, 1.8-3.4점은 Fair, 그리고 3.5-5.0점의 경우 Poor 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excellent 에서 Good 까지인 0-1.7점, 그리고 Fair 에서 Poor 인 1.8-5점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PR의 경우 치면세균막관리의 양적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임의로 Plaque Free Score를 변형하여 시행하였는데, 치아면을 협면과 설면으로 구분한 후 치태가 침착된 경우 1, 치태가 없는 경우 0

으로 계산하여, 전체 치아면 중 치태가 침착 치면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계산식은 (착색치면수/전체 치면수) \times 100 이었다(Zhu L et al., 2005). 본 연구를 위하여 0-30%와 31%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술자로 참여한 학생은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을 수행한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 39명이었으며, 연구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PHP index와 PR 측정법에 대하여 재교육하였다. 학생들간 PHP index와 PR 조사에 대한 신뢰도(Inter-Clas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0.941로 95% 신뢰구간 0.901-0.971에 포함되었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자가구강위생관리능력,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2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의 관련성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관련 외모문제에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40.98%)은 남성(25.64%)에 비해 외모 불만족 비율이 높았고, 연령에 따라 외모불만족 학생의 비율은 20세 이하 44.44%, 21-25세 31.58%, 그리고 26세 이상 14.29%로 대학생들 중 연령이 많을수록 외모불만족 비율이 점점 낮아졌다<표 1>. 이는 외모관리행동은 성인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황진숙과 김윤희, 2006). 특히 김선희(2003)의 연구에 의하면

20대 여성의 경우 외모관리행동에 더욱 적극적이며, 그 중 체중관리행동에서 가장 보편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는 대학생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만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의 관련성

변수	범위(N)	구강관련외모문제(%)			p-value*
		만족	보통	불만족	
성별	남(39)	33.33	41.03	25.64	0.140
	여(61)	18.03	40.98	40.98	
연령	≤20(36)	19.44	36.11	44.44	0.455
	21-25(57)	24.56	43.86	31.58	
	26≤(7)	42.86	42.86	14.29	
계열학과	보건계열(45)	24.44	35.56	40.00	0.553
	비보건계열(55)	23.64	45.45	30.91	

*p<.05, Chi-square 검정에 의함

2. 대상자의 자가구강위생관리능력과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와의 관련성

대상자들의 자가구강위생관리능력과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구강상태에 대한 DMFT index 는 3 이하가 62명으로 비교적 건강한 구강상태를 보였으며 구강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PHP index는 0-1.7인 학생이 55명으로 역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R은 31% 이상인 경우가 89명으로 Plaque 조절능력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DMFT index 와 구강관련 외모문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DMFT index 는 4 이상에서 구강관련 외모문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수록 구강관련 외모불만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R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지는 않았으나 31% 이상인 경우가 89명으로 Plaque 조절능력은 비교적

낮은 군에서 구강관련 외모불만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자가구강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일부 대학생들의 외모관리행동과 건강증진행동은 김선희(2003)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체중관리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아직까지 구강상태 인식에 대하여는 관심도가 낮고 건강증진행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HP index와 PR 등 자가구강건강관리상태와 구강관련 외모문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은 이유는 이 또한 외모관리행동은 주로 스트레스, 자존심이나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변인과 관련성이 높은(심정은, 1996; 이수경, 고애란, 2006; 정명선, 2003) 반면, 자가구강건강관리상태에 대한 건강관리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구강관련 외모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양호한 구강상태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강보건교육 기회의 확대 및 구강건강행동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가 요구된다.

<표 2> 대상자의 자가구강위생관리능력과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와의 관련성

변수	범위(N)	구강관련 외모문제(%)			p-value*
		만족	보통	불만족	
DMFT ^a	0(20)	25.00	40.00	35.00	0.826
	1-3(42)	21.43	47.62	30.95	
	4≤(38)	26.32	34.21	39.47	
PHP Index ^b	0-1.7(55)	23.64	45.45	60.91	0.553
	1.8-5.1(45)	24.44	35.56	40.00	
PR ^c	0-30(11)	36.36	36.36	27.27	0.587
	31-100(89)	22.47	41.57	35.96	

*p<.05, Chi-square 검정에 의함

^aDMFT; Decayed, Missing, Filling Teeth^bPHP index;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cPR; Plaque Rate

<표 3>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과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와의 관련성

변수	범위(N)	구강관련외모문제(%)			p-value*
		만족	보통	불만족	
전반적 구강문제	전혀없음(12)	41.67	41.67	16.67	0.199
	약간있음(71)	25.35	39.44	35.21	
	많이있음(17)	5.88	47.06	47.06	
치료필요	필요있음(49)	18.37	42.86	38.78	0.622
	필요없음(24)	33.33	41.67	25.00	
	모르겠음(27)	25.93	37.04	37.04	
구강상태만족	만족(25)	64.00	20.00	16.00	0.001
	보통(50)	14.00	58.00	28.00	
	불만족(25)	4.00	28.00	68.00	

*p<.05, Chi-square 검정에 의함

3. 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과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의 관련성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과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서 대상자의 전반적 구강문제에 대하여 71명이 '약간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반적 구강문제와 구강관련 외모문

제 사이에는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강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9명 이었고, '필요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4명 이었다. 그러나 구강문제 치료의 필요성과 구강관련 외모문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대상자는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하여 '만족'과 '불만족'이

각각 25명 이었으며, 구강관련 외모문제와 양의 관련성이 검토되었다($p < 0.05$). 즉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하여 '만족', '보통', '불만족'에서 각각 구강관련 외모문제 불만족 비율이 각각 16%, 28%, 그리고 68%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지금까지 외모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주로 외모관리행동 측면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향후 외모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건강의 개념이 고려되어야 하며 외모향상의 추구는 건강증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동변화 측면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대상자의 자가구강상태평가와 구강관련 외모만족도

<표 4>의 결과에서 볼 때 대학생들은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나 자가구강건강관리능력과 관계없이 자신의 전반적 구강문제인 치료필요에 대하여 구강관련 외모문제는 구강건강이나 치료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규칙한 치열로 인한 대인관계 불편

함'에 대하여만은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었는데, 구강관련 심미적 불만족 문제에 대하여 치과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강관련 외모문제는 치과진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에 대한 자가구강상태평가 및 외모개선에 대한 치과치료의 이해가 필요하다. 김윤과 황선진(2008)는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최근 외모개선을 위한 예방적 교정 및 청소년 교정 치료가 늘고 있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구강관련 외모만족도 향상 역시 건강증진행동과 관련성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으며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관련성 검토가 필요하다. 외모만족도 향상은 신체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행동과 함께 최적의 건강상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건강증진행동은 개인의 습관이나 환경의 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안녕상태를 향해 나가는 건강관리를 말하며(Brucker, 1983), 구강관련 외모만족도가 구강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4> 자가구강상태평가와 구강관련 외모만족도

자가구강상태평가 항목(N)	구강관련 외모문제(%)			p-value*
	만족	보통	불만족	
칫솔질시 잇몸출혈 있음(32)	34.38	37.50	28.13	0.236
입냄새로 대화불편함(22)	40.91	36.36	22.73	0.094
단단한 음식 저작불편함(12)	33.33	33.33	33.33	0.704
온도차로 인한 음식섭취 불편함(24)	20.83	29.19	50.00	0.197
불규칙한치열로 인한 대인관계불편함(22)	0.00	31.82	68.18	0.001
치아통증 있음(6)	33.33	33.33	33.33	0.848
치아사이 음식물끼임 불편있음(54)	24.07	40.74	35.19	0.998
스스로 치아관리에 자신감 있음(43)	23.26	48.84	27.91	0.327
노인이 된 후 틀니장착 가능성 있음(19)	21.05	21.05	57.89	0.053
자신의 구강상태는 좋은편임(29)	27.59	48.28	24.14	0.345

* $p < .05$, Chi-square 검정에 의함

IV. 결론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 그리고 자가구강위생관리능력과 자가구강상태평가에 대한 구강관련 외모만족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서 경기지역 A 대학 치위생학과 계속구강건강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명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대학생의 구강관련 외모만족도가 구강건강증진 행동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AS Version 9.2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관련 외모문제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40.98%는 '남성' 25.64%에 비해 외모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모 '불만족' 학생이 20세 이하 44.44%, 21-25세 31.58%, 26세 이상이 14.29%로 낮게 나타났다.
2. 대학생의 DMFT index 와 구강관련 외모문제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았으며 PHP index와 PR 등 자가구강건강관리상태와 구강관련 외모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3. 대학생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에 대하여 구강관련 외모문제와 양의 관련성이 검토되었다($p < 0.05$). 자신의 구강건강상태 '만족'에서 외모문제 '불만족'이 16%, '보통'에서 28%, '불만족'에서 68%로 각각 구강건강상태 '만족'에서 외모문제 '불만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대상자의 자가구강상태평가에서 '불규칙한 치열로 인한 대인관계 불편함'에 대한 구강관련 외모문제에서 '만족'이 0.00%, '보통'이 31.82%, '불

만족'이 68.18%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검토되었다($p < 0.05$).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 인식은 구강관련 외모문제와 양의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자가구강상태평가에서 '불만족'이 '불규칙한 치열로 인한 대인관계 불편함'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관련 외모만족도가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의 시사와 일반적으로 구강관련 외모만족도가 구강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행동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도에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1개 대학 치위생학과 계속구강건강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로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전국 또는 지역별로 확대하여 조사 및 분석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구강관련 외모만족도 인식과 구강건강상태 인식 및 행동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강남순. 대학생의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 및 미용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2011;9(1):63-80.
2.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1995.
3. 김선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3;41(5): 99-108.
4. 김선희. 중장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대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10.
5. 김신정, 안은숙. 여대생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1997;27(2):264-274.

6. 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신체가치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009;10(3):581-600.
7. 김지영. 일부 고등학생의 구강보건인식도와 Significant Caries(SiC) Index 조사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6;6(1):19-22.
8. 김종욱. 중년여성의 자기애성향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박사학위논문]. 대구: 대구한의대 대학원, 2010.
9. 박은아, 김현정, 서현숙. 문화적 자기개념(self-construals)에 따른 외모중시 가치관과 외모관리행동. 한국심리학회지 2009;10(2):251-274.
10. 박은정, 정명선.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2010;18(4):717-730.
11. 보건복지부.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2010
12. 심정은.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13. 오영진. 여성의 외모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광주: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5.
14. 이수경과 고애란. 외모향상추구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06;30(1):59-70.
15. 이승희, 박길순.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복식문화연구 2011; 19(5):1075-1087.
16. 이은실. 신체매력 지각이 건강증진행동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11;49(6):47-56.
17. 이현옥, 구양숙.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009;11(2):271-277.
18. 임보형.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객체화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19. 전현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및 신체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전남: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20. 정명선, 김재숙.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특질 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1;39(2):131-146.
21. 정명선.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2003;53(3):165-179.
22. 황윤정.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23. 황진숙, 김윤희.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2006;56(3):13-55.
24. Brucker BH. Health promotion -A linguistic analysi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83;5(3):1-14.
25. Zhu L, Petersen PE, Wangn HY, Bian JY, Zhang BX.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behaviour of adults in china. Int Dent J 2005;55(4):231-241.